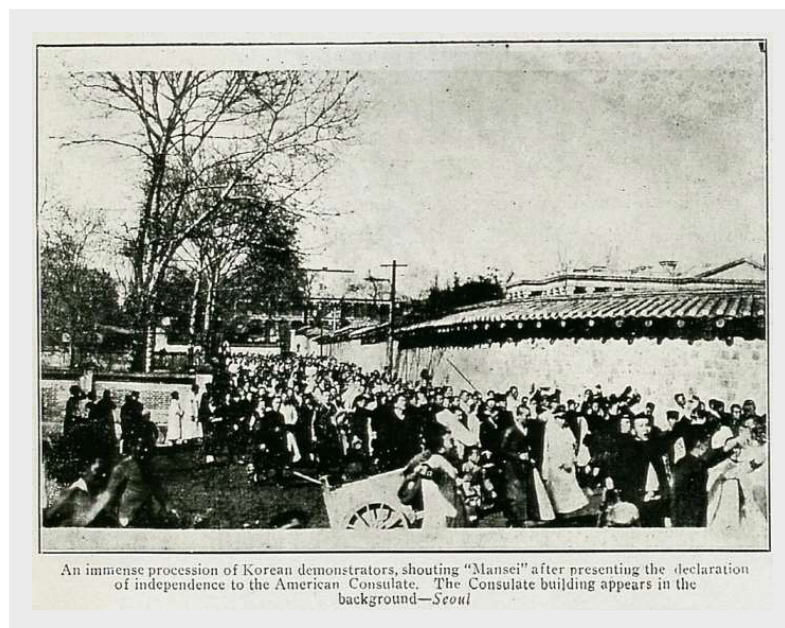


3.1 운동

일제 강점기 최대의 전 민족적 독립 항쟁

1919년 ~



1 개요

3·1 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은 고종의 인산일인 1919년 3월 3일에 앞서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기미독립운동이라고도 하고 북한에서는 3·1 인민봉기라고도 부른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독살설이 퍼진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대표 33인으로 부르며, 그밖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간접적으로 만세 운동의 개최를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대표 48인 또는 프랭크 스코필드를 포함 민족대표 49인으로도 부른다. 이들은 모두 만세 운동이 실패한 후에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게 된다. 약 3개월 동안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인수가 106만여 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이었다. 1919년 3월 당시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는 1,678만 8천400명이었다. 일본인 학자 야마베 겐타로에 의하면 운동의 참여자는 5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신복룡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세를 부른 사람의 수효는 46만 3086명 정도로 보았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당시 조선 인구 중 2.76%에서 2.97%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기록대로라면 전체 국민 중 6.31%가 만세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펴던 조선총독부는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된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2 3·1 운동의 진행과정

데라우치 마사타케에서 육군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으로 계승된 무단통치는 “3·1독립운동”이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케 했다.

이런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4개조의 전후처리 원칙을 밝혔다. 여기서 그는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소위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하였다. 그의 주장이 식민지 조선에 알려지면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희망의 분위기가 일어났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1918년 말부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소요사태를 일으켜야 한다는 김규식의 발언과 1919년 초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종 황제의 죽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절묘하게 기회를 포착하였다.

당시 중국에 유학 중이던 여운형과 신규식 등 신한청년당 당원은 파리 강화회의가 조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영어를 잘 하는 김규식을 파견하고, 조선쪽에는 일본어에 유능한 장덕수를 파견한다. 이러한 소식은 조선 안팎의 독립운동가들을 상당히 고무하였다.

그리고 여운형 자신은 중국 길림성으로 가서 활동하면서 무오독립선언의 촉매역할을 했다. 만주 지린(간도)에 있는 독립운동가 김약연과 만나서 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 원칙과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는 무오 독립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1919년 출국 전 김규식은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독립 시위를 벌일 것을 주문하였다. 김규식의 독립 시위 주문은 3·1 운동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규식은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이 내가 누군지 알리가 없다.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파견되는 사람은 희생당하겠지만 국

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내가 맡은 사명이 잘 수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때마침 발생한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역시 일본인들이 고종을 독살 하였다는 이야기가 나돌며 절묘하게 만세시위 확산에 기여하였다.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고종의 죽음 역시 국민적 감정을 자극해서 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종이 이 왕세자와 나시모토 공주의 결혼식을 꼭 나흘 앞두고 승하하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말이지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예전에 이미 굴욕을 감수한 고종이 이제 와서 하찮은 일에 억장이 무너져 자살했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어린 왕세자의 일본 공주의 결혼이야말로 왕실의 입장에서는 경사스런 일이 아닌가?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왕실간의 우호관계가 증진될 것이고, 왕세자는 조선의 어떤 여성보다도 더 우아하고 재기 넘치는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다. 만약에 고종황제가 병합 이전에 승하했더라면, 조선인들의 무관심 속에 저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들은 복받치는 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옷소매를 적셔가면서 고종황제를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 윤치호 일기, 1919년 1월 26일 일요일

만주 지린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1918년 말 무오 독립선언을 통하여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였고,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에 의한 통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시위는 순수한 평화적 시위였으나 일본군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폭력화되었다.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대표인 손병희 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천도교인, 기독교인, 불교도인이 모두 함께 대표로 참여하였다.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천도교와 기독교 인사들의 연합으로 만세 시위 계획과 장소가 결정되었다. 불교계의 대표로는 한용운 등이 참여하였다. 최남선의 초안에 춘원 이광수가 교정을 보고 만해 한용운이 공약 3장을 덧붙였다.

한편 윤치호는 독립운동가들로부터 국민대표로 서명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 이에 실망한 일부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 민족적 거사를 순진한 애국심에 기초한 민족주의자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파악했다. 강제병합 이후에도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선전, 선동을 하는 지식인들을 혐오하고 경멸했다. 그밖에 이상재 등도 서명을 거부했고, 멀리 있었던 이승만 등의 서명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준비 과정에 신철에 관한 일화가 있다. 1919년 2월 하순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인 신철(申哲: 일명 申勝熙)은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 보성사(普成社)를 급습하였다. 신철은 보성사 사장 이종일이 보는 앞에서 윤전기를 멈추고 <독립선언서>를 빼내어 보았으나 그냥 돌아갔다. 이종일이 최린에게 보고하자 최린이 신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돈을 주며 만주로 떠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일본 측 기록에는 신철이 그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한국 측 기록에는 그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3월 3일로 예정된 거사를 3월 1일로 앞당겼다.

2월 28일경 손병희의 집에 모여 '유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약속 장소인 탑골 공원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민족대표는 태화관(泰和館)에서 모였다.

3 기미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당시 일제 강점 하에 있던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 글이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모이기로 했던 조선의 민족대표 33인은 늦게 온 사람이 있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길선주,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를 제외한 29인이 모였다. 그들은 태화관(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고, 오후 4시 무렵 끝났다. 그들은 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자부로에게 전화를 걸어 독립선언 사실을 알렸는데, 이는 자신들이 태화관에 모여 있으니 연행해 가라는 뜻이었다. 60여 명의 헌병과 순사들이 태화관에 들이닥쳐 민족대표를 남산 경무총감부와 지금의 중부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저녁 무렵에 길선주 등 태화관에 오지 못한 나머지 4인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민족대표 33인이 선언한 선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2. 반만 년이나 이어 온 우리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이 선언을 널리 퍼서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올바르게 바뀌는 커다란 기회와 운수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워 보이는 것이니, 이 독립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민족 자결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므로, 천하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독립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 기미독립선언서 처음 부분 (현대어역)

한편 오후 2시에 태화관과 300미터 떨어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민족대표 33인이 보이지 않아 한동안 당황하였으나 경신학교 출신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오후 3시경에 보성법률상업보통학교 학생 강기덕, 연희전문학교의 김원벽 그리고 한위건이 민족대표의 소재를 찾아 나섰다.

거사시간을 기약하지 않고 모인 학생이 천 여 명이었고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그마한 태극기와 선언서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처럼 쏟아졌다. 모인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 허공에 던지며 미친 듯이 기뻐하였다. 이 때, 성안과 지방의 백성들도 합세하여 수십 만의 군중이 참여하였다. 시위 군중은 두 갈래로 나뉘어 행진을 하였는데, 한 갈래는 중

로 보신각을 지나 남대문 쪽으로 향하고, 한 갈래는 매일신보사 옆을 지나 대한문을 향하였다. 대한문에 이른 군중을 이끌던 사람이 덕수궁의 혼전에 나아가 세 번 절하고 계속 만세를 불렀다. 시위행진은 서울을 8개구로 나누어 길을 가면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일본군과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조선독립만세", "조선 독립정부를 수립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여 서대문과 태평로를 지나 미국 영사관에 이르렀다. 이때 어느 학생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써 '대한독립' 4자를 써서 앞에 들고 군중을 인도하니 미국영사는 문을 열어 환영하고 깊은 동의를 표했다. 한 사람이 일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독립의 주지를 연설하고, 종로에 이르러 다시 연설을 벌이자 일본 헌병과 기마병들은 칼을 휘두르며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군중들은 태연자약한 태도로 물러가지 않다가 6시가 되어서 자진해산하였다. 다음날 총독부는 독립단을 수색하고 체포하여 투옥하였는데 그 숫자가 1만 여 명에 이르렀다.

4 전국적인 시위와 폭력 진압

3·1 운동은 경성에서 시작되어 불과 수개월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일본과 연해주 등 해외에서도 벌어져 1년여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임종국의 『실록 친일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 동안 1,214회의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독립선언서가 본래 낭독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 탑골공원에서부터 만세 시위가 발생하였다. 몇십 만 명이 동시에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당황한 일본군들은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그에 더 자극 받은 한국인들의 운동이 그 규모를 더하였다.

3·1 운동의 참여 인원은 최소 50만에서 20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3·1 운동 이후 3개월간 만세 운동 상황은 202만 3,089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시위 횟수는 1,542회,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피체포자 46,948명이었으며,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 교였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106만 명이 참가하여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 12,000명이 체포되었다.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3월 1일에서 5월 말까지 시위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7,979명, 부상자가 1만 5,961명, 검거자가 4만 6,948명 정도였다.

3·1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폭력의 조짐이 보이자 박종양은 4월 6일 대구에서 자제 내지는 진압, 시위 참여자를 설득, 귀가시키기 위해 자제단을 조직하였다. '자제단 발기인회'가 조직될 때 그는 자제단 본부를 구성하고 단장이 되었고, 대구 자제단 본부장도 겸임하였다. 대구부청 앞에서 조직된 자제단 조직 성명서에서 박종양은 자제단 결성 취지에 대해 '경거망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자제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소요(3·1 운동)를 진압하고 불령한 무리를 배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경북도 참여관 신석린이 주동이 되어 안동, 성주, 군위, 김천 등지에 자제단 지부가 조직되었다. 5월에는 경상남도에도 부산, 밀양, 창원, 사천, 통영 등지에 자제단이 구성되었으며, 6월에

는 청주, 충주, 천안, 아산, 제천, 청주 등지에 자제단 지부가 결성되고 6월 27일 옥천군 옥천면에서 정석용에 의해 옥천 자제단이 조직되었다.

이들 자제단은 12월까지 각지에서 3.1 운동 참가자들에게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 호소하거나 만세 운동을 해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5 반응 및 파급 효과

만세 열기는 5월까지 계속되었다. 5월 31일 윤치호는 7, 8명의 젊은이가 종각역 근처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것을 목격했다. 일본 헌병이 들이닥치자 그 중 한 명이 주머니칼로 자신의 목을 그었다. 이를 지켜본 윤치호는 그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 '눈을 뜨고 지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에 감격'하였다. 그러나 이런 행동만으로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윤치호는 3.1 운동이 국내외에 한국인에 대한 시각을 개선시켰다고 평했다.

또 그는 3.1 운동이 한국인들 스스로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계기를 마련했고, 조선의 멸망을 당연히 시하고 일본에게 긍정적이던 국내 체류 미국 선교사들의 시선을 개선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의 잔인한 진압이 미국인 선교사들과 미국 지식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3.1 운동을 계기로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온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은 독립을 향한 마음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주지방에 있던 독립운동가들과 3.1 운동으로 인해 상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적으로 독립의 결의를 나타내 각 국가의 국민에게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파하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승전국은 이런 한국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3.1 운동의 실패를 예견한 윤치호는 만세 운동이 한참 진행 중이던 3월 2일자의 일기에서, 학생들을 앞세운 뒤 만세 대열에서 슬그머니 발을 뺀 기독교, 천도교계 인사들을 음모꾼들이라며 규탄했다. 3.1 운동 후 구치소에 수감되는 여학생들의 모습에서는 일제 경찰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밤새워 괴로워했다. 이후 3월 5일~3월 7일 그는 시내를 다니며 만세 시위 직후의 동태를 파악했다. 3월 7일 기자 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치호는 심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완용, 예종석 등의 3.1 운동 반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완용, 예종석 등에 대한 성토 여론이 조성되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를 하던 조선총독부는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된다. 3.1 운동에 의해 일본 정부나 총독부 측에서는 기존의 통치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인인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파견을 기점으로 기존의 강압적 통치에서 회유적 통치로 그 방향을 선

회하게 된다. 그 결과 단체활동 및 언론활동이 허가되었고 아주 기초적인 초등 교육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친일파 양성을 통해 한민족의 분열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식민 통치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한 통치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될 때까지 문관 총독은 단 한 명조차도 임명되지 않았다. 또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사실상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경찰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으며, 독립운동가 색출을 위한 전문적인 '고등 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문화통치를 통하여 자신들을 조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소수의 친일관료들을 키워 조선인을 이간하여 분열시켰다. 아울러 민족의 근대 의식 성장을 오도하며, 초급 학문과 기술 교육만을 이용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을 대량 양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3·1 운동에 대한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건 명칭은 “조선만세소요사건”(朝鮮萬歲騷擾事件)이고, 기본적 시각은 ‘소요’(못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한 지방의 공공질서(公共秩序)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평가는 다른 점도 있다. 경기도 경찰부 경찰부장을 지낸 치바 료(千葉了)는 자신의 글 <조선독립운동비화>에서 3·1 운동에 대해 “민족 본능의 지하수의 분출” 또는 “천변괴이의 상”이라고 표현하였다.

대한민국의 일부 사학계에서는 이 운동이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도의 반영운동, 그 밖에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3·1 운동이 중국의 5·4 운동에 참여한 일부 지식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만세운동이라는 평화적 항쟁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해, 후자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볼셰비키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민중의 폭력적 시위와 연결되는 점,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의 학계에서 3·1 운동의 한계가 무산계급 투쟁의 불완전성에 의한다는 담론을 파급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뉴욕타임즈는 1919년 3월 13일자에서 “조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알려진 것 이상으로 3·1 운동이 널리 퍼져나갔으며 수천 여 명의 시위자가 체포됐다.”고 기록했다. AP통신은 “독립선언문에 ‘정의와 인류애의 이름으로 2,000만 동포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